

목포, 세계 김산업 메카로 도약... 수출 호자상품 등극

목포시가 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우리나라 김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시장 점유율 70%를 기록하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는 1위 품목으로 2020년 6억달러 수출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목포에서도 김산업을 주요 경제 동력과 동시에 수출 호자상품으로 등극했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지역 수출액 7800만달러 중 70%를 김이 차지하고 있으며, 김은 수산물 수출액의 94%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다.

지난 3월에는 일본 수산청과 대사관, 영사관, 일본 전국김가공협회, 전국김도매협회 등 5개 단체가 대양산단의 김 가공공장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목포 대양산단의 김 가공업체 두 곳을 방문해 제조공정과 시설 등을 살펴보고 마른김의 품질을 확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 김을 수입하는 중국 베이징 제중도국제무역유한회사 관계자도 대양산단의 김 가공공장을 방문했다.

일본·중국 등서 대양산단 가공공장 잇따라 방문 진흥구역·마른김 거래소 등 특화단지 육성 박차



또한 주한 덴마크 외교부 소속인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화상으로 한-덴 해조류 교류협력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해조류 산업 현황과 김을 포함한 전남 해조류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또 덴마크 현지에서 전남 해조류 산업과 다양한 김 관련제품을 전시했으며 현지 산·학·연 분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 등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목포시는 일본 김관련 5개 단체의 방문과 중국 무역회사 방문을 통해

서 대일·대중 수출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김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해 지난해부터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마른김 거래소 도입 ▲수산물 김 박람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화단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목포수산물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가 전국 최초로 해수부 제1호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김산업 특화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센터는 올해 제12회 김의 날 행사를 맞아 김의 품질검사 기준 마련 및 검사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마른김 거래소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국 최초로 마른김 거래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목포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건립을 하고 있다.

마른김 거래소는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목포시가 추진 중인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 1300㎡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순천정원박람회 ‘오천 설랑계 요가’ 운영

오늘부터 오천그린광장서 진행... 누구나 참여 가능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8일부터 ‘오천 설랑계 요가(오천설랑계)’ 프로그램을 박람회 기간 매주 화~토요일 오천그린광장 상설무대 앞에서 진행한다.

조직위는 모두의 해방구로 자리잡은 오천그린광장의 웰니스 콘텐츠를 강화하고자 정원박람회 기간 중 특별히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천설랑계는 요가 전문가와 함께 하는 요가·명상·커뮤니티댄스 등으로 구성되며, 평소 요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접하기 어려웠던 시민, 잔디광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관광객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금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또는 관광객은 별도 접수 절차 없이 즉석에서 자유롭게 돛자리나 매트 등을 깔고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요가를 즐기면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존재 자체로 안정감을 주는 잔디광장은 요가와 명상을 즐기기에 최적의 공간이다”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조순의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은 “존재 자체로 안정감을 주는 잔디광장은 요가와 명상을 즐기기에 최적의 공간이다”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조순의 기자

해남,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30만원 지원

군 교육재단 출범 첫 사업... 7월 사무실 개소 예정

해남군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이후 첫 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입학축하금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3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해남군 교육재단(061-530-5931)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입학생의 친권자 또는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타지역(관외)학교로 전학을 한 경우와 타지역에서 입학한 후 관내 학교로 전학 온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해남군내 초등학교 입학생

은 총 314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민과 함께 키우는 성장하는 교육도시 해남’이란 비전으로 지난 2월 설립 등기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식 출범한 해남군 교육재단의 첫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교육재단은 민·관·학이 참여하는 교육전담 지원기관으로 장학사업, 초·중고 교육지원사업, 평생교육, 성인 문해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해남군 평생학습관 1층 사무실을 리모델링 중으로, 오는 7월 중 전담 조직 인력을 갖추고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교육재단에서는 초등학생 입학생 축하금 지원 사업 외에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학생 및 청소년 안전과 신사업 분야의 교육 시책사업, 학부모-자녀간 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담양 ‘스마트강소농 교육’ 수강생 오는 15일까지 모집

담양군이 ‘스마트강소농’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강소농이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의 운영 이해, 데이터의 수집·분석, 인공지능 기술의 농업적 활용 등 가변 특성에 맞는 스마트, 디지털 농업 역량을 키워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를 의미한다.

담양군은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스마트강소농 육성’ 시범 시군 가운데 하나로 팥기 품목 스마트강소농을 육성하게 된다.

이달 16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17회 68시간을 교육하며, 교육과목은 스마트 농업 기술과 경영, 농산물마케팅 교육과 지능형 농장 맞춤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모집은 오는 15일까지이며, 관내에서 스마트농업 팥기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 강소농의 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농업 교육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농업인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재 기자

강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바쁜 영농철 큰 보탬

여성농업인 중식 부담 경감·농업 생산성 향상

강진원 군수가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 한창인 신전면 노해마을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급식 준비 부담을 줄이고, 여성 농업인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동급식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급식시설이 부족하거나 인력 수급에 지장이 있는 마을은 음식업 등록업체 또는 마을 반찬 사업장 등을 선

정해 반찬과 도시락 배달로 대체하고 있다.

올해 지원 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총 80개소이며, 마을별 여건에 맞게 상·하반기에 나눠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75개의 마을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군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급식일수 확대, 부식비 추가 지원으로 마을당 78만 4000원을 추가로 배정했으며, 당초 각 마을당 예정된 사업비 242만 원에 군비를 추가해 총 320만

원이 투입된다.

노해마을 한영민 이장은 “1년 중 가장 바쁜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통해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농업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다 보니 마을공동체 회복과 소통의 장까지 마련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앞으로도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특히 농촌의 고령화·여성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신안 도초 ‘환상의 정원’ 산림청 모범도시숲 선정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수국축제장으로 힐링하러 오세요”

신안군은 도초도의 ‘환상의 정원(팽나무 10리길)’이 지난해 산림청에서 처음 시행한 모범도시숲 가로수 부문 인증을 받아 최근 산림청장 인증 현판을 도시숲내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모범도시숲’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도시숲 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2022년 처음 시행됐다.

모범도시숲 가로수 부문의 ‘환상의 정원’은 수종 선정부터 식재, 사후 관리, 연계 행사 등 인증 심사기준을 모두 통과해 모범 도시숲으로 선정됐다.

특히, 도초에서 매년 개최되는 수국축제와 환상의 정원을 가꾸는 자원봉사단체 및 주민 참여 활동 등이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안군 관계자는 “1심 1테마 플로피어 심 정원 및 숲길조성을 통해 모범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신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범도시숲 인증을 받은 환

상의 정원(팽나무 10리길)에서는 오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배로 가는 섬 수국축제’를 개최하며, 수국정원과 환상의 정원은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단위 면적(ha 당 전국 최다 수국 식재 인증을 받은 바 있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수국을 만날 수 있다.

/신안=박정래 기자



구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구례군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배출업소 및 개인하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기간에 환경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군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 및 집중호우 기간에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6월 말까지는 사전홍보와 계도 활동을, 7~8월에는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8월 말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 사업장에는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례=오광범 기자

‘쌀·꽃게·곱창김까지...’ 진도 농수산물 호주 수출길

5톤 규모, 호주 시장 첫 수출 현지인 입맛 공략



진도의 농수산물이 호주 수출길에 오르면서 지역 농수산업 활성화와 농어가 소득증대를 이끌고 있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달 초 진도 쌀, 곱창김, 젓갈류, 견해산물과 진도 도살 등 5t(5만 달러) 가량의 농수산물

출발에 올랐다.

수출된 진도 농수산물은 호주 한인마트 등에 납품돼 교민들과 현지인들

의 전 세계 확산과 맞물려 진도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과 농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최재영 기자

나주, 전기자전거 구입비 최대 30만원 지원

15일까지 온라인 신청

나주시가 친환경 생활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구입비 지원한다. 총 50대 분량으로 1대당 구입비용의 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나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상, 나주시

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가구당 1인에 한해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 관내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해야 한다.

자전거 모델은 페달보조(PAS) 전

용 방식의 150만원 이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제품이어야 한다.

해당 제품은 ‘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 작동’, ‘시속 25km 이상 운행시 작동 금지’, ‘자전거 총중량 30kg 미만’ 등의 조건이 붙는다.

/나주=서철훈 기자